



3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가 옛 도청별관 처리문제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별관 철거가 곧 5·18 살리는 길”

문화전당 설계 우규승씨 ‘오월의 문’ 방식 반대

“도청별관 가운데를 뚫어 만들자는 ‘오월의 문’은 5·18을 기념하고 상징한 설계 콘셉트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씨가 시민단체가 제기한 ‘오월의 문’ 건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씨는 3일 오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청별관을 철거해야 도청(구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청(구 전남지방경찰청) 건물이 전당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며 “별관 철거가 곧 5·18 사적지를 살리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또 “문화전당은 도청별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별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지상에 들어설 5·18 광장과 지하에 들어설 아시아문화광장 사이를 막게 돼 5·18을 상징하는 열린광장의 콘셉트도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우 씨는 ‘오월의 문’에 대해 “오월의 문은 성문 역할을 해 하나의 개념인 아시아문화광장과 5·18광장을 단

힌 공간으로 만든다”며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지하철 역사와 아시아문화광장을 연결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변경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

그는 이어 “‘오월의 문’안은 어린이지식박물관의 반 정도를 재설계해야 하고 건물 구조 안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설계 변경은 1년 이상의 공기 연장과 비용 문제로 수반한다”고 피력했다.

부분 보존안에 대해서도 우 씨는 “부분 보존은 일부 철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별관의 형태가 파손돼 오히려 훼손의 의미만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잘라진 도청 별관은 기형적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돼 현재의 갈등 상황만을 후세에 전하게 될 것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0인 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별관 철거 문제 해결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우 씨는 “건축가로서 여론조사에 대해 알기알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입을 닫았다. 우 씨는 “설계자로서의 사명은 5·18을 기념하고 누가 봐도 기억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명을 위해서는 현재의 설계안에 충실하는 것이다”고 설계변경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특히 그는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는 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질이 중요

하다. 크기가 적어진다고 해서 가치가 적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의 9·11메모리얼이나 독일의 베를린 홀로코스트는 장소성보다 집단의 기억에 역사적 가치를 두고 있다”고 외국 사례도 제시했다.

한편 우 씨는 오는 6일 열리는 광주 지역 방송 3사 공개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비정규직법 타협점 찾나

한나라·민주 원내대표 오늘 회동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비공개 양자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진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다. <관련기사 2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유예안 반대입장을 철회하면 유예기간에 대

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비정규직관련법 유예보다는 법 발효에 따른 대량해고 방지 등 보완책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어서 회동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과 국회내 특위 설치 제안 등을 수용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법시행 유예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전교조 간부 9명 고발

서울 전교조 본사 압수수색…‘시국선언’ 본격 수사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간부 9명을 검찰에 고발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일 전교조의 지난달 시국선언과 관련해 광주·전남지부 간부 9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은 광주 윤영조 지부장과 김해주 수석부지부장 등 4명, 전남 홍성봉 지부장과 박현희 수석부지장 등 5명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전국교사대회’와 ‘2차 시국선언’ 등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징계 방침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7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시국선언

서명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광주교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5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표현의 자유 보장 및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하고 대시민 선전전도 펼칠 계획이다. 현재 광주·전남에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모두 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영등포경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해 시국선언 관련 문건 일체와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찰 201개, 컴퓨터 본체 4대, 조직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전교조 20년 역사상 처음이다. 2차 시국선언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수십년간 합법적으로 이뤄져 온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될 수는 없다”며 “정권의 탄압에 흔들림 없이 2차 시국선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해임·징계 등 중징계하고,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조항 및 정치활동 금지령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26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민주, 미디어법 4자회담 수용

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

민주당 3일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법 관련 4자회담을 전격 수용해 파행중인 국회 정상화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총장·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했던 미디어법 4자회담은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

광방송통신위의 간사가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태도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합의가 안 되면 이번 6월 회기 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안 원내대표가 제안한 미디어법 관련 협상을 위한 4자 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며 “4자회담은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통과를 위한 명분쌍기용이 돼선 안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일단 한나라당 측

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진정성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성실히 회담에 응하겠다”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4자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해 일부 쟁점에 대해 타협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회담 시점에 대해 박 의장은 “안 원내대표의 제안을 민주당이 통크게 수용한 만큼 언제 만날지에 대해서 따로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시기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복고풍 레저 열풍 ▶3면

바캉스 용품 화끈 세일 ▶4면

장마철 습기 안녕~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앤서니김 단독 선두 ▶14면

대한민국 보청기의 자존심 세기보청기

세기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보청기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 센터 / PCANY

상담전화 1588-8419 / 060-222-0100

1538-5388